

광활한 녹색 평원, 아름답게 수놓은 봄꽃, 호수 너머 보이는 만년설...

바이칼 호수 따라 걷는다, 천천히 천천히

슬로투어의 매력 '바이칼호수 트레킹과 알혼섬'

1080여종 식물·1550여종 동물 있는 곳 2500만년 자연사 고스란히 담은 박물관 호수학 연구소 가면 민물 바다표범 반겨 칭기스칸 문했다는 전설 속 바위도 있어

'봄꽃 만개한 청정자연의 매력을 슬로투어 로 느낀다.'

몽골어로 '자연'을 뜻하는 바이갈(Baigal)에서 유래한 바이칼 호수는 러시아 여행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워너비(wannabe) 명소이다. 러시아 시베리아 남동쪽의 이르쿠츠크와 브랴티야 자치공화국 사이에 있는 바이칼 호수는 면적이 3만1500km², 저수량 2만2000km³로 제주도의 절반만한 크기다. 담수호중에는 세계 최대 규모이다. 규모와 투명도 등 각종 수치에서도 세계 기록을 갖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 여행에서 사람들이 바이칼을 그토록 가보고 싶어하는 것은 이런 규모의 웅장함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오염되지 않은 자연생태계 자체의 아름다움과 다양한 역사, 문화 유적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바이

칼호는 계절마다 다른 매력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겨울 바이칼호가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순백의 왕국으로 멋진 풍광을 자랑한다면, 봄철에는 광활한 녹색의 평원지대와 그곳을 아름답게 수놓은 각종 봄꽃, 그리고 호수 너머로 보이는 만년설의 산악이 어우러지는 그림같은 정경을 선사한다.

특히 봄날 한결 온화해진 기온과 투명한 공기를 뚫고 내리쬐는 햇살을 느끼며 호수가 거니는 트레킹은 '슬로투어'의 진수로 특히 유럽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스포츠동아 마중투어와 함께 기획한 봄철 '바이칼호수 트레킹과 알혼섬'은 겨울 시베리아 황단철도를 타고 찾아갔던 바이칼호의 또 다른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다.

●자연생태계의 보고에서 경험하는 4시간 트레킹

바이칼 호수는 오랜 역사와 고립된 위치로 동식물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다. 식물이 1080여 종, 동물은 1550여종에 달하며 이중 80% 이상이 이곳에만 있는 고유종이다. 여행의 첫날 러시아 이르쿠츠크 공항서 내려 호



바이칼호수 트레킹.

수로 이동하는 길에 만나는 '바이칼호수 박물관'에서는 2500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바이칼호의 자연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소리 과학 아카데미연구소 부속 호수학 연구소로 바이칼 호수에 대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호수나 주변의 산악지대에 서식하는 동식물들의 표본을 진열하고 있다. 6개의 대형 수족관에는 민물 바다표범 네르파를 비롯해 오물, 하리우스 등의 고유 어종을 볼 수 있다.

호수 박물관에 이어 가볼 곳은 리스트비앙카 마을. 바이칼 호반에는 러시아 전통 가옥으로 이루어진 촌락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다. 러시아 시골의 전통적인 생활상을 접할 수 있는데, 리스트비앙카 마을이 대표적이다. 전통통나무집과 개조된 통나무집들이 있고 숙박시설



알혼섬의 부른바위.

도 잘 갖추어져 있다. 인근 앙가라 강가에는 러시아 목조건축물과 민속품을 전시하는 박물관 '탈치' 박물관도 있다. 탈치(Taltsi)는 '봄'이란 뜻으로 시베리아 각지에서 오래된 목조건축의 견본들을 가져와 전시하고 있다.

바이칼호 투어의 핵심 여정 중 하나인 트레킹은 팔라나 해변에서 발쉬에카투까지의 코스로 약 4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바이칼 호수변을 따라 언덕을 오르내리는 트레킹으로 대자연의 신비와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광활한 녹색의 대평원과 자작나무숲, 그리고 알혼섬

바이칼호수에는 약 330여 개의 강이 흘러 있는데, 특이하게도 밖으로 나가는 수로는

앙가라(Angara) 강 하나뿐이다. 호수 안에는 22개의 섬이 있는데, 이중 가장 큰 것이 길이 72km인 알혼(Alkhon) 섬이다. 이르쿠츠크에서 6시간 정도 차로 달려야 갈 수 있다. 이르쿠츠크에서 알혼섬까지 가는 길은 파랑계 물이 오른 시베리아의 드넓은 스텝 대평원과 야생화 지역, 그리고 자작나무 숲을 만날 수 있는 멋진 드라이브 코스다.

거제도의 두배 정도 되는 알혼섬은 지역 원주민 부라트족 말로로 '햇볕이 잘 드는 땅'을 의미한다. 독특한 지형과 함께 타이거, 스텝, 작은 사막 등 다양한 기후의 식생대가 어우러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알혼섬 북부에서 우아한 4륜구동차량을 타고 사라예스키 해변을 따라 걸으며 사자섬, 움직이는 악어 바위, 폐시안가(2차대전 당시 포로수용소 잔해), 삼형제바위(시간후손) 등의 명소를 돌아볼 수 있다. 특히 이곳 하보이 곳에서는 알혼섬 최북단 말라에모래와 발쇼에모래를 돌아보는 트레킹도 즐길 수 있다.

또한 칭기스칸이 문했다는 전설이 있는 부른바위를 비롯해 섬내 유일한 동물 해변인 우쥬르 마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허트 모양인 사랑의 언덕 등의 관광지도 알혼섬 투어의 필수 방문지로 꼽힌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봄을 맞아 맑은 물빛과 호숫가의 푸른 잔디, 그리고 호수 너머 멀리 아직 녹지않은 눈을 이고 있는 1500~2000m대 고봉들이 하늘과 맞닿아 있는 바이칼 호수의 전경. 눈이 시리도록 하얗고 투명했던 겨울 모습과는 다른 매력을 느끼게 해준다.

사진제공 | 마중여행사

이르쿠츠크는 '시베리아의 파리'

러시아·유럽 양식 혼합된 건물 매력적 박물관 '발콘스키의 집'도 대표적 명소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로 4시간15분 정도 날아가는 이르쿠츠크는 바이칼호 여행의 관문이다. 이르쿠츠크의 주도로 인구는 59만명. 기계, 목재, 모피, 식료품등의 공업이 발달한 도시다. 이르쿠츠크는 단순히 바이칼호 여행을 위해 오고거머 지나치기에는 아까운 유서 깊은 문화를 지닌 곳이다. 시베리아의 여러 도시 중에 가장 긴 35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

고, 그런 연륜에 걸맞게 도시 곳곳에는 볼거리가 많다. 특히 '시베리아의 파리'란 애칭에 걸맞게 사머니즘과 러시아 정교회가 추구하는 전통양식과 유럽의 바로크 형식이 혼합된 '시베리안 바로크' 스타일의 독특한 건물들이 매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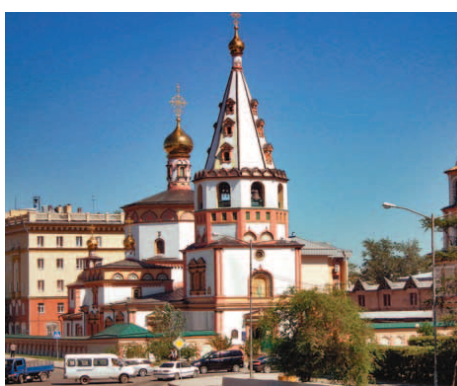
이르쿠츠크의 역사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데카브리스트 혁명이다. '데카브리스트'는 1825년 개혁을 부르짖으며 혁명을 일으켰던 귀족 청년장교들을 가리키는 말로 러시아 근대사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꼽힌다. 이르쿠츠크의 관광 명소 중에는 이 데카

브리스크와 관련된 곳이 많다.

대표적인 곳이 즈나멘스키 수도원. 시베리아 최초의 여자 수도원으로 이르쿠츠크를 대표하는 건축물이다. 정원에 시베리아를 처음 발견했다는 세리호프의 무덤과 함께 혁명의 꿈을 못이두고 눈을 감은 데카브리스트들과 그들의 가족이 묻혀 있다. 또한 소설 '전장과 평화'의 모델이 됐던 데카브리스트 박물관 '발콘스키의 집'도 있다.

이밖에 영화 '제독의 여인'의 실제 주인공인 폴락제독 동상, 전사자를 추모하는 영원의 불(베즈니이아콘)을 볼 수 있는 키로바 광장, 스파스카야 교회 등의 유서 깊은 건물과 장소가 볼만하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통나무집마을 130번



이르쿠츠크 시내 전경.

가'에서는 19세기 후반 이르쿠츠크 대화재로 소실된 전통가옥을 고증을 거쳐 재현한 것을 볼 수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스포츠동아와 마중여행사 공동기획

'바이칼호수트레킹과 알혼섬 5일'은?

▲일정 = (1차)5월5일(금)~9일(화): 20명 (2차)5월19일(금)~23일(화):20명 (3차)5월26일(금)~30일(화):20명

▲여행경비 = 185만원(스포츠동아 구독자 특별할인가 175만원)

▲프로그램 특전 = 바이칼호수 트레킹(발쉬에카투 코스:소요시간 4시간), 바이칼호 명물 오믈과 보드카 시식, 바이칼 관광수 매일 1명 제공, 러시아 사우나 반야 체험, 전통음식 사슬릭 특식 제공, 국적기(대한항공 인천-이르쿠츠크 직항) 이용.

▲기타 문의사항 및 예약 = 마중여행사 (주)(전화 02-730-2270, 메일 judy4@naver.com)

뉴스디자인 | 이수진 기자



"두산 4~5점, 한화 2~3점" 예상 1순위

■ 야구스페셜 1회차 투표율 중간집계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도토의 수탁사업자인 (주)케이토토(대표 손준철)가 31일 개막하는 2017시즌 한국프로야구(KBO) 3경기를 대상으로 한 야구도토 스페셜 1회차 게임의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넥센 두산 SK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다 득표는 두산-한화(2경기)전의 홈팀 두산(53.40%)이 차지했다. 원정팀 한화는 29.20%에 그쳤고, 나머지 17.40%는 두 팀의 같은 점수대를 점쳤다. 최종 점수대에선 두산 4~5점-한화 2~3점 예상(8.03%)이 1순위를 차지했다.

넥센-LG(1경기)전에선 넥센 승리 예상(47.79%)이 LG 승리 예상(33.33%)을 앞질렀

다. 나머지 18.91%는 두 팀의 같은 점수대를 예상했다. 최종 점수대의 경우 넥센 4~5점-LG 2~3점 예상(8.34%)이 가장 높았다.

SK-kt(3경기)전에선 SK 승리 예상(45.85%)이 최다였다. kt 승리 예상(36.87%)과 두 팀의 같은 점수대 예상(17.26%)이 그 뒤를 이었다. 최종 점수대로는 SK 4~5점-kt 2~3점 예상(8.06%)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번 야구도토 스페셜 1회차는 31일 오후 6시 50분 발매 마감된다.

K리그클래식·EPL 14경기 승무패 맞혀라

■ 축구승무패 12회차 투표율 중간집계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도토의 수탁사업자인 (주)케이토토(대표 손준철)가 4월 1일(한국시간)부터 3일까지 펼쳐지는 국내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6경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8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축구도토 승무패 12회차 게임을 발매한다.

이번 회차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경기는 EPL 3위 맨체스터시티와 6위 아스널의 맞대결이다. 참가자들은 맨체스터시티의 승리(40.48%)를 높게 점쳤다. 아스널 승리 예상은 29.02%에 그쳤고, 나머지 30.50%는 무승부를 택했다.

홈팀 아스널의 최근 분위기는 매우 좋지 않다. 리그 5경기에서 1승4패로 부진해 6위까지 떨어졌고, 바이에른 뮌헨(독일)과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선 1·2차전 합계 스코어 2-10의 굴욕을 맛봤다. 시즌 초반 13경기 연속무패의 기세가 오간데 없이 사라졌다. 원정팀 맨체스터시티 또한 챔피언스리그 탈락 이후 치른 리버풀과의 리그 경기에서 1-1로

축구도토 승무패 12회차 투표율 중간집계

번호	경기일시	원정	홈	승	무	패
1	4.1(토)15:00	상주상무	대구FC	58.04%	30.66%	11.30%
2	4.1(토)15:00	인천Utd	수원삼성	24.36%	39.13%	36.51%
3	4.1(토)15:00	전남드래	포항스틸	30.45%	33.85%	35.70%
4	4.1(토)20:30	리버풀	에버턴	62.44%	29.25%	8.31%
5	4.1(토)23:00	첼시	웨스트햄	28.16%	30.61%	41.23%
6	4.1(토)23:00	레스터	스토크	54.28%	24.98%	20.74%
7	4.1(토)23:00	맨체스터	브로미치	85.69%	9.39%	4.93%
8	4.1(토)23:00	왓포드	선덜랜드	52.66%	25.88%	21.46%
9	4.2(일)01:30	사우샘프	버밍엄	55.57%	24.86%	19.57%
10	4.2(일)15:00	전북현대	FC서울	53.23%	26.38%	20.39%
11	4.2(일)15:00	울산현대	강원FC	34.72%	31.59%	33.69%
12	4.2(일)15:00	제주Utd	광주FC	88.05%	7.40%	4.55%
13	4.2(일)21:30	스완지	미들즈브	64.95%	25.74%	9.31%
14	4.3(월)00:00	아스널	맨체스터	29.02%	30.50%	40.48%

비기면서 2경기 연속 승점 1점에 머물렀다. 최근 분위기로만 보면 맨체스터시티의 손을 들어줄 수 있지만, 최근 3년간 맞대결 전적에선 아스널이 2승2무1패로 다소 앞서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번 축구도토 승무패 12회차는 4월 1일 오후 2시50분 발매 마감된다.

프리메라리가·EPL·NBA 총 7경기 점수는?

■ 토트언더오버 13회차 발매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도토의 수탁사업자인 (주)케이토토(대표 손준철)의 새로운 배당률 게임 토트언더오버 13회차가 발매된다.

토트언더오버는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을 대상으로 5경기 또는 7경기를 선정해 홈팀과 원

정팀 각각의 최종득점이 주어진 기준값과 비교해 낮은지, 높은지를 예상하는 게임이다. 각 팀의 최종득점이 기준값 미만이면 언더(U), 초과면 오버(O)를 고르면 된다.

이번 13회차에선 4월 2일(한국시간) 열리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3경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경기, 미국프로농구(NBA) 3경

기 등 총 7경기로 시행된다. 자세한 일정은 살펴보면 프리메라리가에선 레알 마드리드-알라베스(1경기)전, 발렌시아-데포르티보 라 코루냐(3경기)전, 그라나다-FC바르셀로나(5경기)전이 선정됐다. EPL에선 아스널-맨체스터시티(2경기)전이 대상경기다. NBA에선 뉴욕-보스턴(4경기)전, 오클라호마시티-샬럿(6경기)전, 밀워키-달라스(7경기)전이 뽑혔다. 이번 토트언더오버 13회차는 4월 2일 오후 9시50분 발매 마감된다.